

2013. 1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2013년 1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대전문화방송

1. 회의개최

일시	장소	참석인원 수		비고
		위원	방송국	
2013.1.29	대전MBC 대회의실	8/10	6	

○시청자위원 불참자 명단: 박희원, 김형주 위원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 김종국 사장, 김미리 경영기술국장, 김종찬 편성제작국장, 서주석 보도국장, 차태헌 방송기술센터장, 오승용 경영심의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6	6	-	3	15	-	15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5	10	-	15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5 건	5건	12월
교양	프로그램 예고 필요	프로그램 예고 방송 시행	12월
교양	프로그램 제작시 연령별 타깃 필요	프로그램 제작시 타깃 설정하여 제작	12월
보도	내포신도시 보다 많은 자원 투입	내포신도시 이동보도국 시행	12월
보도	토론 프로그램 홈페이지 관리 철저	홈페이지 다시보기, 미리보기 등 시행 철저	12월
보도	엑스포 과학공원 대기업 참여 철저 하게 지역민 입장에서 관리 강화	교통, 골목상권 보호 지속적으로 보도	12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해당사항 없음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교양	<p>'시사플러스'의 <대전, 세종, 충남 2013년을 말한다>편을 잘 봤다. 대전시의 원도심 활성화방안에 대해 말해보겠다. 도청 이전 후 원도심 공동화 문제가 심각한데 대전시는 이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하다. 국악의 전당에 400억, 연정국악원 공사 280억 도안신도시 박물관 등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여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러한 예산이 도청 이전 후 원도심 활성화 대책 예산으로 투입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갖는다. 도청 이전 후 시민대학의 교양강좌를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인데 상당히 즉흥적이다. 알맹이가 빠져 있다. '시사플러스'에서 원도심 공동화 문제에 대해 접근을 하고 있지만 접근방법이 새로운 대안으로 볼 만한 내용이 부족하다. 심도 있게 진단을 해 주길 바란다(장동환).</p>	<p>원도심 활성화 방안은 지역의 주요이제이므로 시사플러스에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다. 새로운 대안 제시는 아주 중대하고 시사프로에서 꼭 담아야 할 내용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나 결코 게을리하지 않겠다. 적은 인력, 제작기간이지만 조기기획으로 심도 있는 접근을 시도하겠다.</p>	<p>편성 의견참고</p>
기타	<p>대전MBC 홈페이지 구성 운영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시청자와 교류하는 '시청자 세상'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시청자의견, 묻고 답하기, 토론방 등 하위 카테고리가 설정되어 있는데 '토론방' 등은 이용도가 거의 없다. 토론방이 꼭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 '묻고 답하기' 란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시청자의견'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홈페이지 구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시청자의견'란의 답변도 늦게 올라오고 있어 시청자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상황은 신속하게 답변을 올릴 필요가 있다. 홈페이지 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송인덕).</p>	<p>홈페이지 구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 중복되는 부분, 전체 내용 중 활성화가 되지 않는 카테고리 등은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 시청자의견란에 게시된 시청자들의 의견에 대하여는 해당 실무담당자들이 지체 없이 답변하게끔 하겠다.</p>	<p>경영 의견참고</p>
교양	<p>'생방송 아침이 좋다'를 모니터하였다. 프로그램 연결하는 진행자 멘트가 어울리지 않은 부분이 있다. 노후 문제를 언급하면서 30년 구두 만드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노후 문제와 결부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문자로 사연을 받아 소개하는 코너가 있었는데 사연이 너무 길어 지루하였다. 라디오 방송도 아니고 TV방송인지라 처리기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유덕순)</p>	<p>좋은 지적에 감사하다. 연결 멘트가 어울리지 않은 점은 바로 제작진에 시정조치 하도록 하였다. 문자 사연 소개는 시청자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프로그램 공감대를 넓히려는 데 있다. 반응이 좋다. 사연이 너무 길다는 지적은 제작진과 더 고민하겠다.</p>	<p>편성 의견참고</p>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교양	<p>2013년을 맞이하여 '시사플러스'는 대전·세종·충남의 도시 계획적 현황과 문제인식, 향후 발전방향을 이야기하기 위한 방송을 하였다. 기존 시사플러스의 포맷과 달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는 방식은 시청자로서 새롭게 다가왔고, 출연하신 전문가들의 식견도 높아 토론의 과정 속에서 깊이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하나의 주제에 따라 각 분야별로 생각의 차이를 들을 수 있었고, 무조건적인 대립과 자기주장을 펼치기 위한 토론이 아닌 개선방안을 찾아가기 위한 토론방식은 긍정적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교수, 기자 등의 사회적 엘리트들로 구성되어 있는 토론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에 비해 시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었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처장의 발언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시청자나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시간이 보완되었으면 더 좋은 방송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오덕성).</p>	<p>'대전,세종,충남 2013년을 말한다'는 신년 특집으로 우리 지역의 주요 의제를 엄선된 전문가를 초청해 기존 토론형식과 다른 접근 방법으로 다루었다. 부족한 프로그램을 좋게 봐 주셔서 고맙다. 시민들의 의견을 담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지적에 공감한다. 안주하지 않고 항상 변화하는 시사 프로그램으로 발전하도록 정진하겠다.</p>	<p>편성 의견참고</p>
교양	<p>시사플러스 「학교 밖 아이들, 그들이 갈 곳은?」을 모니터하였다. 본 편은 제도권 교육 외의 대안교육을 주제로 방영되었다. 시작과 끝은 대안학교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 대안교육을 하기에 어려운 사회 구조를 꼬집어 냈다.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이나 학생이 받을 수 있는 혜택 등에 대한 아쉬운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인터뷰 내용의 일부가 논지에서 벗어난 듯한 느낌을 주었다. 대안교육의 사례인 대안학교와 홈스쿨링, 로드 스쿨링을 실시하는 학부모나 운영자를 인터뷰하였는데, 단순히 각 교육에서 발생하는 에피소드 정도에 그치는 장단점을 나열하였을 뿐 앞서 주장된 논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즉 본 편에서 시사하는 바가 공교육에서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 혜택이 동일하게 대안교육에도 주어져야 한다는 것인지, 제도권 교육 외의 다양한 교육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하여 소개하는 것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짧은 방송시간에 비해 너무 많은 것을 다루려고 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오</p>	<p>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시사 프로그램은 주어진 시간내에 사실을 기반으로 한 명료한 전달이 중요한데 제작진이 너무 많은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한 것이 다소 장황한 인상을 준 것 같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p>	<p>편성 의견참고</p>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덕성).		
기타	프로그램을 홈페이지 '다시보기'를 통해 본다. 늘 아쉬운 점은 다시보기 화면이 작다는 점이다. 크기를 확대하면 화질과 선명도가 많이 떨어진다. 이를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 주길 바란다(김명수).	홈페이지에서 다시보기의 화질과 선명도는 파일의 인코딩방법과 용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유한의 웹공간에 많은 양의 파일을 저장해야하기 때문에 기존파일의 화질과 선명도를 다소 떨어뜨려 용량을 적게 변환시켜야만 하는 문제가 뒤따른다. 인코딩방식을 수정하여 기존보다 좀더 또렷한 영상을 볼 수 있게 작업을 하였다. 현재 화질을 개선하여 2월1일부터 다시보기를 제공하고 있다.	경영 수용
보도	'생방송 토론마당'에서 대전지역의 이슈가 아닌 충남지역의 이슈인 홍성, 예산 통합논의 주제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반가웠다. 대전MBC 시청권역이 대전권역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남 관련 소재를 많이 발굴하여 충남관련 의제를 프로그램에 계속적으로 적극적 반영할 필요가 있다(김명수).	대전·세종·충남 권역의 대표 방송사로서 좀더 다양한 지역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보도 수용
보도	'생방송 토론마당'의 진행자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다. 생방송이다보니 진행상 어려움은 있겠지만 종료시점을 보면 깔끔한 마무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레벌떡 끝난다고 할까, 패널들에게 마무리 발언을 주문하고 종료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면 진행자가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제작진이 구성 방식을 진행자와 의견을 교환했으면 한다(김명수).	진행자와 사전 협의해서 좀더 원활하게 프로그램 마무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	보도 의견참고
교양	'토크 앤 조이'에서 작가 박범신편은 스튜디오 제작을 탈피 출연자를 직접 찾아가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시청자들에게 다양성을 보여준다고 생각되어 좋아 보였다. 가끔은 전형적 제작방법을 벗어나 시청자들과 교감하는 형식을 가졌으면 한다(김명수).	칭찬에 감사한다. 스튜디오 제작 탈피는 시청자들과 교감하기 위해 제작진이 고민한 결과이다. 가끔은 강당, 야외에서 제작해 항상 변화하는 프로그램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	편성 수용
교양	신년특별기획 '인문적 상상력을 디자인하라' 프로그램은 기획의도가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휴대폰, 컴퓨터에 익숙한 젊은 세대에게 인문학적 상상력의 필요성을 잘 녹아	신년특별기획 프로그램에 관심을 기울여주어 감사드린다. 앞으로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시청자들과	편성 의견참고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내고 있다. 출연한 임현우 교수의 강의 내용도 좋았고 방청객들과 시청자들과 공감할 수 있게 자료화면도 많이 준비하여 보여주고 있어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런 특별기획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여러 편이 소개되었으면 한다(김경숙).	교감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신년특별기획 프로그램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보도	‘생방송 토론마당’의 패널들을 보면 여러 번 지적했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다. 즉 진행자, 패널 모두 대전 출신 인물이다. 프로그램은 대전·세종·충남을 언급하는데 출연자는 모두 대전 사람이다. 패널을 섭외할 때 충남인들도 골고루 섭외를 해야만 한다(김경숙)	충남 권역에서 다양한 패널들이 출연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인력풀을 마련하겠다.	보도 의견참고
보도	‘생방송 토론마당’의 진행자 이야기를 해보겠다. 대전, 세종, 충남 자치단체장이 출연하여 지역 현안문제 등을 언급하였는데 세종시장의 경우 세종시 아파트 문제, 교통문제 등이 좋다고 표현을 하였다. 최근 세종시 아파트 하자, 병원시설 미비, 치안 문제 등이 언론에서 여러 번 언급할 정도로 세종시 인프라 문제는 좋다고 표현할 수준은 아니다. 진행자가 이 부분은 치고 들어가 정리를 해주어야 한다. 이런 부분을 보면 진행의 미숙함을 느낀다. 토론마당이 벌써 19회째이다. 진행에 대한 지적이 여러 번 있어서 진행자 무게감이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김경숙).	진행자의 진행역할은 시사진단 프로그램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패널을 아우를 수 있게 진행이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해 개선하겠다.	보도 의견참고
보도	아침 ‘뉴스투데이’에 ‘이슈 인’ 코너가 신설되어 우리 지역 기관장 인터뷰가 자주 소개된다. 새해라서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은 되지만 인터뷰 대상층을 일반시민들로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김영광).	연초 기관장 인터뷰로 시작했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화제의 인물 등으로 소재의 폭을 넓혀가겠다.	보도 수용
보도	과학벨트 부지 매입 관련 예산문제를 보도하였다. 이 문제를 이상민 국회의원과 인터뷰를 하였는데 예산 관련 문제는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국회의원과 인터뷰를 했으면 시청자들에게 설득력을 줄 수 있었으리라고 본다. 택시요금 인상 뉴스를 볼 때 요금인상비율을 타 도시와 비교하여 일목요연하게 도표로 제시하여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면 하	인터뷰를 할 때 보다 더 세심하게 하겠다. 그래픽과 도표 등을 통해 뉴스를 일목요연하게 전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	보도 의견참고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는 아쉬움이 있었다(김영광).		
기타	<p>세종시 첫마을아파트(특히 대우아파트) 주민들과 직접 나눈 이야기이다. 대전MBC가 시청이 되지 않고 청주MBC가 시청된다는 가구가 있었다. 또 대전MBC 시청시 화질이 많이 떨어진다는 가구도 있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유선방송망의 문제인지, 케이블방송사 문제인지, 대전MBC 송출에서 문제인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한찬희).</p>	<p>2월 6일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에 대하여 DTV 수신상태를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 체크해 보았다. 이 지역에 유선(케이블)방송 가입자일 경우 대전MBC를 좋은 화질로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선방송 가입자가 아닐 경우 아파트 공시청안테나를 통한 직접 수신가구는 벽에 설치된 두 개의 단자 중 유선방송단자가 아닌 단자를 이용하여 TV에 연결하여 좋은 화질로 시청할 수 있다. 디지털방송의 경우 아파트 옥상 안테나를 통하여 직접 수신된 신호를 관리사무소 채널컨버터를 거쳐 각 세대에 공급하고 아날로그의 방송의 경우 디지털신호를 관리사무소 D/A 컨버터를 통해 컨버팅하여 각 세대에 신호를 공급해주고 있는데 화질이 떨어진다는 가구는 아날로그 방송 시청가구로 추측되며 공청시설 D/A컨버터 또는 선로문제일 가능성이 있다. 스카이방송의 경우 자체채널 부족으로 대전, 청주, 충주MBC를 교대로 방송하고 있는데 청주MBC가 수신된 가구는 스카이방송을 통해서 시청하는 것으로 추측된다.</p>	기술수용

